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파랗고 하얗게 시리다

추억의 도시락으로 점심은 해결하고, 시간을 내어 교정을 거닐어 본다. 아이들이 없는 이곳에 도시락이 등장한 것은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행복인지도 모른다. 그 행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준 것이 바로 동료 선생님들과 느긋하고, 하염없이 이곳저곳을 거닐며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을 공유할 수 있다는 표현적인 '여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다. 항상 결론은 이 넓은 교정에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인가? 하는 시리고 시린 물음표다. '오늘월에도 남의 일은 손이 시리다'는 속담은 '남의 일은 힘들지 아니한 일도 하기 싫고 고되다'는 말이다.

이처럼 '시리다'는 형용사로 첫째, '물'의 한 부분이 찬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 둘째, '찬 것 따위가 달아 통증이 있다', 셋째, '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어느 날, 무심결에 바라다본 '하늘'이 '눈에 시리다'고 느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언제냐, 마음만 먹으면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선택하지 않아도 낮이나 밤에 눈에 들어오는, 가장 친근한 것이 바로 '하늘'이다.

그 '하늘'이 때로는 하얗고 파랗다



박 여 범

홍익대학교 교감·시인·문학박사

못해 시리기도, 장애비를 동반하는 먹구름 덩어리로, 떠도는 연기처럼 그저 그런 하늘로, 우리 눈에 담겨 있다.

시각적 동창회 방울방울 물감처럼 파랗게 하얗게 물들이면 눈에 담가두고 하늘바라기 한 시발 시리고 시리다 못해 세상을 담는다

-시인 박여범 '하늘' 전문-

위의 시처럼, '하늘'이 시리게 다가와 세상을 다 담아주는 거대한 방울덩어리로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 두 눈을 감고 간절함으로 자유로운 상상으로 토해낸 시가 바로 시인 박여범의 '하늘'이지 않을까? 시인은 '하늘'을 방울방울 시골벽적인 동창회를 무대로 설정하였다.

그 '동창회' 마당인 '하늘'이 '파랗게, 하얀 물감으로 물들이면', '느긋하게 눈에 담고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웃음을 던지는 친구에게 못한 세상의 회로애락을 독자와 소통의 공감을 나누고 있다.

'고민'이든, '비밀'이든, 일단 털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지인이든, 의사이든, 목사이든, 신부이든, 친구이든, 자연의 일부이든,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털어놓음'이 아발로 혼자 상심하고 신경질로 보내던 아쉬운 시간과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주변을 돌아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바다처럼', '사막처럼', '호수처럼', '빙하처럼', '하늘처럼',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주저하면

주저할 때마다 믿음은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하늘'은 마음만 먹으면, 올려다볼 수 있는 존재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눈이 부시다' 못해 시리고 시려서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하늘'이다. 이 '하늘'에다가 마음속에 있는 오해와 진실을 메우고 표현해 보자.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세 줄 이상이어도 좋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

자신감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다짐으로 '하늘'을 표현해 보자. '왜 이제 왔니?'며 장난처럼 먹구름을 물고 와 소낙비를 퍼붓더라도 그것을 몸으로 막아내자.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워 보자. 시각적 동창회 마당에 그려온 친구가 파랗게 하얗게 물감처럼 다가오게 하자. 그 동창회에서 나도 파랗고 하얗게 물들어 보자.

그러면 '당신이 있어 가장 행복한 나'는 '시인처럼, 리듬을 타는 새로운 변화'의 '하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답은 이미 사랑하는 당신, 바로 그대, 당신, 가까이 있다. 당신이 있어 가장 행복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방울방울 시골벽적인 세상을 담는 하늘나라 동창회가 열릴 날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행복하지 않은가?

사설

이 어려운 때 읍주운전을 하는 공직자들

모든 공직자들은 양심을 지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도내에 그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인가. 코로나 19 때문에 비상 사태를 맞아 다들 애쓰고 있는 이 시국에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단 읍주 운전으로 구설수에 오른 공직자들이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일반 시민들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공직자들이 하고 있음은 공

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도민 대대수는 지난해 몇몇 인사에게 있었던 비위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이따른 사퇴와 사과와 변명은 도민들이 보기에 매우 속 상하는 것이었다.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술 마시는 것은 자제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읍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

주시 시의회 의원이 있으니 시민들은 개심하라며 공분하고 있다. 그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콜 농도 0.064%의 수치를 보여줬는데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

다는 일반 시민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 다시 언급하거니와 모든 공직자들은 행동이며 일처리를 조심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전북 만큼 공직자들이 빈축 대상이 된 지역도 없다. 전북도민 모두가 조심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정녕코 말이 안된다. 무주 군청의 한 직원도 읍주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읍주 축제를 거부하기까지 했더니 어이가 없다.

여기 당연한 말을 하거니와 시의원도 공인이고 군청의 공무원도 공인이다. 글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공인이 되어 가지고 모범이 되기는 고사하고 나쁜 본보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창피인가. 따라서 주민의 뜻에 반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 억눌러 마땅하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이다. 공직자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단순히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령 인구 20% 넘는 문제 고민해야

전북도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 한다.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많은 것들 중 하나가 거주 인구의 고령화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도내 전체 인구 182만3천9백여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36만5천여 명으로 전체 비율 20%를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거의 매년 제일 컸는데 거주 인구마저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문제이다.

청년 인구 유출에 더하여 저출산이 고민이 되고 있는 중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 지역 사회의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65세 이상의 인구 증가는 우리 전북이 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변에 인구 감소로 도내 읍면 등의 77%가 소멸 위기라는 진단이 있었는데 전북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여기 다시 언급하거니와 저변에

'인구 늘리기 민간 실천 협약'이 어찌됐는지 궁금하다. "인구법을 쌓아 전북 소멸을 막자"고 했는데 말이다. 예전에 서울시가 65세 이상 인구 15%를 넘어섰으며 호를 감소하게 걱정을 말했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있어선 곤란하다. 매년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까닭은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8.12%이던 것이 2017년에는 18.72%로 늘었다. 그리고 2018년에 19.27%이던 것이 2019년부터는 앞에 밝힌대로이다.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큰데 전북도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출산 장려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다가는 현재의 182만 명대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될 터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봄철 줄음운전 조심 당부

외투를 입지 않고 외출을 하더라도 포근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온이 오르면 자연스레 춘곤증이 찾아오는데, 이는 줄음운전을 유발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서히 빠지게 되는 줄음운전이라고도 이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로 매우 짧다. 그리고 운전자는 이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를 '블랙아웃' 현상이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인 줄음운전자는 총괄 직전까지도 위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가 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줄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전하는 중간중

간 자동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탑승한 경우, 차 내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차 안에 결을 비치하여 졸릴 때 먹으면 졸음을 이겨 내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졸음이 쏟아져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는 졸음쉼터를 적극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한다. 졸음운전은 나 자신만이 아닌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 빠르게 가는 것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조금은 여유로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자.

이용민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최선

최근 '반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운전자와 이용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이 많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은 이미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고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독일과 한국교육의 차이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독일은 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성(性)은 생명, 인권과 관계된 영역으로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인정하면서,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사회적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안전수칙의 핵심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 혹시라도 불안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 등이다.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신광일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